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 1. 사탄의 2 단계 시험

2010년에는 연초부터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하여 온 세계에 번진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역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세계 경제가 정지하다시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자기네 주님으로 섬기도록 원하셨습니다. 이번 역병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그분의 의도는 퇴락한 이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이 험악한 시험을 통하여 승리한 일에 대하여 공부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이후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적인 권능을 허용하심을 봅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반면에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곧바름을 입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정당하지 못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곧바른 심령을 줄곧 유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12]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들에 대하여 제한된 권능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손대지 말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그런 제한적 시험은 욥에게 충분한 시험이 되지 못하므로 그의 몸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욥기 2:4-6]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 둘지니라, 하시니라.*

욥 시험의 2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주되 그의 생명은 살려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지근에서 보좌했던 천사장의 하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흑암이 빛의 밝음을 드러내듯이, 그리고 밤이 있어야 동이 트고 낮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하여 그분의 백성들의 영적 곧바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 2. 욥의 시험에 대한 의지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똑바른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습니다.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엄청난 손실과 개인적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경험이 다 지나갔을 때에 '정금' 즉 순금처럼 나오리라고 걱정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치심에 따라 걸어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 곧바로 걸었으며, 세상과 사탄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파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이켜 자신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하나님의 길과 진리에 충실함으로써 이 큰 고난이 다 지난 후에 정금처럼 흠 없이 나오리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 후에 최종 승리를 얻는 승리자로 나오기로 스스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3.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결심

여러분 중에 욥의 경험과 비슷하게 갑자기 가족의 일원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직장이나, 친한 친구의 우정을 상실한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나 가족중에 암이나 다른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큰 손실이나 질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쓴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손실이나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욥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된 자녀임을 입증하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허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바로 인지하고서 여러분도 욥이 한 것처럼 그 경험이 지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 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이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변명하거나 정당화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선하신 의지와 계획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다음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그분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 왔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면 그 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 보시고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도록 관여하신다는 아름다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훌륭한 약속을 주시므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료될 때에 우리는 골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런 상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